失業者의 心理狀態에 影響을 주는 要因에 관한 分析

金 勝 權

실업은 時代와 社會를 불문하고 항상 存在하며, 다만 '水準의 差異'에 따라 그 심각성을 달리 한다. 1997년말 外換危機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실업자가 양산되어 어려움을 겪었으며, 최근 失業率 水準은 다소 回復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 失業은 가구소득을 감소시켜 실업당사자와 그 家族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업당사자는 다양한 心理的 變化를 겪게 된다. 실업자의 心理的 變化는 自身에게 뿐만 아니라 家族員 및 社會에 대한 態度에도 많은 영향을 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예기치 못한 突發行動을 하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실업자가 느끼는 불안감, 적대감, 우울감 등의 심리상태는 실업기간이 길수록, 가계의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의 필요성이 强한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실업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은 실업자와 이환실업자, 가구소득이 낮고, 노인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실업자가 이러한 심리상태에 많이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실업자의 심리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실업자를 대하는 家族員들의 態度와 對處行動이었다. 실업자에 대하여 배우자가 용기를 주지 않고, 실업자 대신에 배우자 또는 자녀가 취업을 하였거나, 실업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막막해 하며, 자녀들이 실업자를 부끄럽게 여기며, 가족이 차가운 반응을 보일 경우에 실업자는 불안감, 적대감, 우울감 등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실업자의 심리적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실직상황에 대해 失職者 및 家族의 認識 및 理解와 情緖的 安定을 위한 家族的 및 地域社會의 紐帶感을 强化하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이나 강연회, 매스미디어 등을 통한 실직자 개인의 狀況把握 能力과 社會 및 家族生活에 대한 認識水準을 높이며 또한 肯定的 方向으로 誘導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心理的 紐帶感 增進을 위한 人的 네트워크의 形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家族의 結束力 强化를 위한 家族相談事業 活性化 및 프로그램 開發이 적극 추진되어야겠다.

주요용어: 실업, 실직, 심리상태

筆者: 本院 責任硏究員

▶ 원고를 검독하여 주신 李善雨·李賢珠 責任硏究員께 감사드립니다.

I. 序 論

景氣沈滯에 이어 나타난 1997년말 外換危機로 인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많은 실업자가 양산되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정부와 전체 국민의 각고의 노력에 힘입어 失業率 水準을 다소 回復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도 실업은 존재하는데 이는 고도의 産業社會인 서구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失業率이 약 4% 이하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 完全雇傭狀態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결국 失業은 時代와 社會를 불문하고 항상 存在하는 것이며, 다만 '水準의 差異'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그 심각성을 달리 한다고 보겠다.

그런데 서구 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韓國社會는 社會保障制度가 미흡하여 생존을 위한 基礎的 生活保障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실업자와 그들 가족원이 겪는 고통이 지대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傳統的 性役割 分化가 강하게 잔존되어 있는 한국가족에게 있어 家長의 失業은 家族扶養의 不安定뿐만 아니라 실업자 자신 및 전체 가족원에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葛藤을 유발시켜 현대사회의 弱化된 家族機能 및 役割과 맞물려 家族解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 마디로 우리 사회의 家族은 '總體的인 危機'를 맞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社會福祉政策과 失業對策은 可視的 症狀을 보이는 경우에 限한 최소한의 事後治療的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어 문제해결에 지극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失業은 가구소득을 감소시켜 실업당사자와 그 家族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실업자를 둘러싼 가족원과 형제자매 및 친·인척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한 個人을 둘러싼 環境의 變化가

그들의 家族員, 地域社會 네트워크, 그리고 社會 등과 有機的인 關係 속에서 相互作用하기 때문이다(金勝權 外, 1998). 그렇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실업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실업자가 가장 큰 충격을 받으며 다양한 心理的 變化를 겪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실업자의 心理的 變化는 自身에게 뿐만 아니라 家族員 및 社會에 대한 態度에도 많은 변화를 주게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예기치 못한 突發行動을 하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예를 들면, 실업자는 과도한 음주, 심각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을 경험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非行 및 犯罪를 저지르기도 한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의 경우에서 보듯 개인의 疾病, 懶怠 등 個人的인 理由가 아닌, 社會構造的 原因에 의한 실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側面이 더욱 深化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실직자는 실직 전·후를 통해 다양한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실직 전에는 초조, 불안, 두려움의 상태에 있다가 막상 실직을 하게 되면 자존감 손상, 분노, 수치심, 열등감 등의 심리적 변화를 겪는다. 특히 재취업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실직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이들의 심리적 어려움은 더욱 심해진다. 이러한 심리변화는 보통 否定 → 不安 → 憤怒 및 背信感 → 受容 → 絶望 및 自暴自棄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고 한다(김재갑 외, 1998; 장혜경 외, 1999 재인용).

따라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실업자의 心理狀態를 살펴보는 것은 社會構造的 條件 및 그 變化가 個人의 行爲와 態度變化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밝힐 수 있어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실업자의 心理狀態는 자신의 人口社會學的 特性과 그들이 속한 家口의 特性에 따라 相異하게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本 硏究에서는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다양한 매개고리로서 실업자의 個人的 및 家族的 特性에 따라 心理狀態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先行硏究

실업당사자와 이들 가족구성원간의 心理狀態에 관한 연구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대량실업자가 양산되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업자의 經濟生活과 관련된 제반 연구에 비하면 量的으로 매우 貧弱한 수준이다. 특히 이들 연구는 調査의 地域과 對象에서 극히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전체 실업자를 대변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자의 心理狀態 變化를 개괄적으로 분석하거나 일부 남성실직자의 配偶者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몇몇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특히 실직당사자의 심리상태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그들 가족원과의 心理的 交流에 대해 立體的으로 접근한 연구도 있어 한국사회에서 실업이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문제현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로서 가치가 크다 하겠다.

金勝權 外(1998)의 硏究結果[1]에 의하면 실직자의 68.5%가 '초조 및 불안' 증세를 보였으며, 특히 여성가구주가족의 실직자 80.3%가 이런 증세를 보여 실업가구의 특성에 따라 심리변화는 다양한 양상을 띄고 있었다. 실직당사자는 주로 無氣力感, 不安感, 挫折感, 責任感 등을 느끼며, 失望感, 負擔感, 억울함, 안타까움 등도 다소 느끼고 있었다. 특히 좌절감, 실망감, 무기력감 등의 감정은 실직자의 삶에 대한 希望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할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極的 狀況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실업자의 심리상태와 관련된 다른 연구와는 달리 金勝權 外(1998)의 연구는 실직당사자뿐만 아니라 실직자와 다른 가족원들간의 感情交流도 함께 분석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에 공헌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

1) 이 연구는 서울과 부산의 626실직가구와 696명의 실직자를 대상으로 연구자에 의하여 사전훈련 받은 전문조사원이 실업가구를 방문하여 직접면접조사의 형태로 1998. 6. 29.~7. 23일 기간중 이루어졌음.

결과를 보면, 실직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에 대해서는 많은 감정적 반응을 하고 있었는데, 실직자가 갖는 그들 가족원에 대한 주요 감정적 반응으로는 責任感, 罪責感이 각각 26.0%, 22.0%로 높았고, 가족부양의 부담감도 12.2%가 느끼고 있었으며, 이 외에도 원망감, 창피함 등도 다소 있어 심리적 양면성을 보였다. 전체 실직자중 주요 가족원에 대하여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비율을 살펴보면, 배우자에 대해 56.0%, (손)자녀에 대해 47.1%,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서는 43.3%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직자가 家族의 主扶養者로서의 責任을 다하지 못함에 따른 심리적인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 사료된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의 연구는 家族員의 61.7%가 失職者에 대하여 심리적 변화를 겪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특히 실직자의 配偶者 중 80.1%가 다양한 형태의 감정적 반응을 보였는데, 안타까움이 45.3%로 가장 높았으나 怨望感, 失望感, 창피함도 10.7%가 있어 이러한 否定的 感情이 表出될 경우 실직자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家族葛藤의 要因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실직남편의 아내를 중심으로 家族問題, 憂鬱感 등에 관하여 수행된 한 연구결과(최규련, 1999)는 경제적 문제를 제외한 실직가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精神健康問題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실직남편은 실직 전에 비해 家庭暴力을 자행하는 경우가 10.8% 증가하고 暴力의 頻度와 程度도 증가하였다고 한다. 실직남편의 아내들은 自尊感이 낮을수록, 남편의 실직대처행동에 대하여 불만이 많을수록, 건강하지 못할수록, 소극적 대처를 많이 할수록 憂鬱感이 높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건강, 부부대화, 자녀지도 및 대화, 부부갈등 문제 등에 관한 아내의 支援要求, 특히 敎育要求가 높다고 제시하였다.

장혜경 외(1999)의 연구[2]에 의하면, '최근의 일에 대한 집중'이 떨어진다고 한 실직자가 66.6%이었으며, '걱정으로 잠을 설치'는 경우는 48.2%,

2) 실직자 65명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실직자의 心理的 安寧狀態를 연구함.

'불행하며 마음이 울적'한 실직자는 44.4%, '자신감 상실'은 38.9%, 그리고 '무가치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직자는 24.1%로 나타났다.[3] 따라서 否定的인 心理狀態에 있는 실직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否定的 心理가 複合的으로 어우러져 있어 연구자의 주장과는 달리 많은 실직자가 심각한 심리적 상태에 있다고 판단된다. 더군다나 이 연구를 위한 조사는 실직기간이 3~4개월인 실직자가 47.6%이고, 전체 응답자의 평균 실직기간이 5.7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실시된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장기 실업이 증가할 경제적 어려움의 가중, 역할부재, 가족갈등 등으로 인하여 실직자의 심리적 안녕은 훨씬 더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정무성(1998)[4]은 실직남편이 주벽, 폭행, 학대 등의 逸脫的 行爲를 많이 자행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조성희(1999)는 가장의 실직은 家出, 자녀·노인의 遺棄 및 虐待, 家庭暴力의 증가, 自殺 등 여러 가지 가족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Perrucci et al.(1997)에 의하면 실직부모는 憤怒, 敵對感이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子女虐待가 발생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실업으로 인해 그 실직 개인들의 심리상태가 불안해져서 사회에 대한 暴力的인 行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심지어는 社會問題化 될 우려마저 있다. 결국 실업은 個人的 費用뿐만 아니라 社會的 費用까지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하겠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1999).

---

3) 심리적 안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항은 모두 12개이었으며, 여기서는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5개만을 소개하였음. 응답비율은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것임.

4) 「사랑의 전화」의 상담통계자료에 기초한 연구임.

Ⅲ. 分析資料 및 分析方法

1. 分析資料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분석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98년도에 실시한『전국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자료이다. 동 조사는 1995년「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에 기초하여 표본추출된 전국 250개 조사지역의 약 30,000가구를 대상으로 전문조사원에 의한 직접면접조사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동 조사에서는 가구를 크게 失業家口[5]와 非失業家口[6]로 분류하였는 바 조사된 총가구수 4,339가구 중 실업가구는 2,767가구, 비실업가구는 1,572가구였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자료에서는 실업자의 心理狀態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12가지 심리유형을 제시하였다. '공포감에 휩싸이는 때가 있음',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됨',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있음',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음',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남', '무엇을 때려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김', '자신도 모르게 울화가 치밈', '잘 다툼', '매사가 힘듦', '허무한 느낌이 듦', '외로움', '죽고 싶은 기분임' 등이다. 그리고 응답문항은 心理狀態의 程度에 따라 '①전혀 그렇지 않음, ②그렇지 않음, ③그저 그럼, ④그럼, ⑤매우 그럼'의 5개 範疇로 구성되었다.

2. 分析方法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12가지 유형의 실직자 심리상태를 전반적으로

---

5) 실업자가 1명 이상 있는 가구임.

6) IMF 경제위기 이후에 전직을 경험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지난 1년간 한 번 이상 구직활동을 한 비경제활동인구가 1명 이상인 가구임.

살펴본다. 이어서 실업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심리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술한 12가지 유형의 심리상태를 不安感, 敵對感, 憂鬱感 등의 세 領域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공포감에 휩싸이는 때가 있음',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됨',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있음',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음' 등의 4개 심리상태는 '不安感'을 나타내는 심리상태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남', '무엇을 때려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김', '자신도 모르게 울화가 치밈', '잘 다툼' 등은 '敵對感'을 나타내는 심리상태로, 그리고 '매사가 힘듦', '허무한 느낌이 듦', '외로움', '죽고 싶은 기분임' 등은 '憂鬱感'을 나타내는 심리상태로 분류하였다. 이들 세 영역의 心理狀態群을 구분하여 각 類型의 心理狀態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이어서 領域別 心理狀態 變化에 영향을 주는 要因을 찾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心理狀態의 程度에 따른 응답문항은 정확한 감정표현을 파악하기 위하여 '잘 모르겠음'도 별도의 응답항목으로 활용되었으나 본 분석을 위해서는 제외하였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분석결과의 독립변수 설명에서 이루어진다.

Ⅳ. 分析結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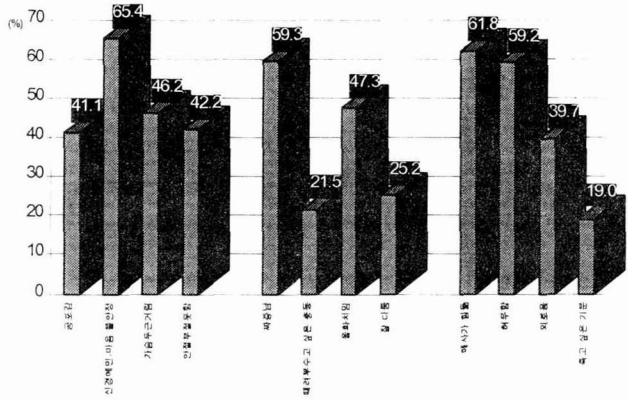
1. 失業者의 全般的 心理狀態

실업자들의 심리상태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가장 普遍的으로 나타나는 心理狀態는 '신경이 예민해지고 마음의 안정이 안됨'으로 실업자의 65.4%가 이러한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심리상태 변화는 '매

사가 힘듦' 61.8%,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남' 59.3%, '허무한 느낌이 듦' 59.2% 등의 順이었다. 이들 네 가지 心理類型은 전체 실업자의 절반 이상이 경험하고 있는 感情的 變化이다. 이들 외에도 실업자가 비교적 많이 겪고 있는 심리상태 변화로는 '자신도 모르게 울화가 치밈' 47.3%, '가슴이 두근거릴때가 있음' 46.2%,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음' 42.2%, '공포감에 휩싸이는 때가 있음' 41.1%, 그리고 '외로움' 39.7% 등이 있었다.

'잘 다툼'(25.2%), '무엇을 때려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김'(21.5%), 그리고 '죽고 싶은 기분임'(19.0%) 등과 같은 過激한 形態의 心理狀態 변화를 겪는 실업자도 다소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엿보게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유형의 감정을 가진 실업자는 그렇지 않은 실업자보다 낮은 비율이어서 다행스럽기는 하나 이들의 家族員과 關係人, 그리고 社會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能動的인 政策的 配慮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가장 극단적인 심리상태라 할 수 있는 '죽고 싶은 기분임'을 표현하는 실업자가 전체의 1/5정도에 이르러 심각한 상황으로 飛火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당히 우려되는 바라 하겠다. 이들 12유형의 심리상태는 다음의 그림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失業者의 心理領域別 心理狀態 水準



2. 失業者의 心理狀態에 影響을 주는 要因에 관한 分析

실업자들의 心理狀態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要因으로는 실업당사자의 人口社會學的 要因, 家族關聯 要因, 자신의 失業 前 職業, 失業期間, 失業理由 등 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諸 要因, 그리고 실업기간 동안의 求職活動, 職業訓鍊 및 公共勤勞 參與, 失業給與 受給 등 다양할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실업자의 다양한 심리상태를 결정하는 要因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가. 分析을 위한 變數

1) 從屬變數

要因分析을 위한 從屬變數는 앞서 설명된 12가지 유형의 心理狀態이다. 그런데 이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들 심리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不安感, 敵對感, 憂鬱感 등의 심리영역으로 大分하여 각 영역에 네 가지 유형의 심리상태를 통합하였다.

조사당시의 응답문항은 心理狀態의 程度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저 그럼, 그럼, 매우 그럼'의 5개 범주 외에도 '잘 모르겠음'도 별도의 응답항목이다. 그러나 '잘 모르겠음'이라고 한 응답자는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들 네 유형의 값은 1~5의 範疇에 있게 된다. 따라서 不安感, 敵對感, 憂鬱感 등과 관련된 변수의 전체 합은 각각 4~20 사이에 있다. 따라서 序列變數의 합에 의한 새로운 序列變數가 生成된 것이다. 그러나 각 영역에서 활용된 12가지 유형의 변수 값인 관측치는 대부분 정규분포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心理狀態의 程度가 정확한 連續變數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값의 크기는 연속변수에 準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表 1 참조).

〈表 1〉 心理狀態 領域別 心理水準 分布

(단위: %)

4개 변수의 합	심리상태 영역		
	불안감	적대감	우울감
4	4.8	4.4	5.0
5	0.7	1.5	0.4
6	1.1	2.5	1.8
7	3.1	4.0	3.2
8	9.4	11.8	9.5
9	4.6	5.9	4.9
10	6.9	10.3	7.9
11	4.9	7.4	7.8
12	9.3	11.7	11.9
13	8.0	9.4	9.5
14	10.6	9.4	11.2
15	8.6	5.6	6.1
16	15.3	8.3	9.5
17	3.7	2.3	4.3
18	2.9	2.2	2.0
19	1.9	1.1	1.9
20	4.4	2.0	3.0
계 (분석건수)	100.0 (2,637)	100.0 (2,678)	100.0 (2,659)

2) 獨立變數

本 分析을 위해 활용된 獨立變數는 모두 25개이다. 이들 변수는 크게 6개 群으로 구분될 수 있다. 실업과 관련된 변수(2개), 취업과 관련된 변수(2개), 정부실업대책과 관련된 변수(3개), 실업에 대한 가족반응변수(5개), 실업이유에 대한 실업자의 주관적 판단에 관련된 변수(4개), 그리고 실업자 및 실업가구의 제 특성(9개) 등이다. 이들 변수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실업의 특징 및 이유, 취업의 필요성 및 노력정도, 실업자에 대한 가족들의 태도, 그리고 실업자 및 그들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및 보건의료적 특성이 실업자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변수 외에도 실업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동 수준에서의 분석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제한점을 가진다.

이들 독립변수와 본 연구를 위한 조작은 <表 2>에 요약된다. 失業期間과 週當 平均求職時間은 실제 기간인 個月數와 時間數를 각각 이용하였다. 직장을 그만 둔 이유는 더미(dummy) 變數化하였다. 즉, 실업자 자신의 책임에 의하여 失業이 된 경우는 0, 직장파산, 폐업, 휴업, 해고 또는 정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 자신의 책임에 의하지 않은 경우는 1로, 그리고 家計의 生計維持를 위한 취업의 필요성이 약하면 0, 강하면 1로 操作하였다.

정부실업대책 관련변수는 실업급여 수급여부, 실업 후 직업훈련 여부, 공공근로 참여여부 등 3개이다. 이는 모두 더미변수로 操作하였는데,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경험이 없으면 0,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으면 1로 하였고, 실업 후 직업훈련의 경우는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으면 0, 직업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으면 1, 그리고 공공근로참여 여부는 참여경험이 없으면 0, 현재 참여하고 있으면 1로 하였다.

실업에 따른 家族들의 反應과 관련된 변수는 '배우자가 용기를 줌', '배우자 또는 자녀취업', '막막해 함', '자녀들이 부끄럽게 여김', 그리고 '가족이 차가운 반응을 보임' 등 5개이다. 이들은 모두 '(매우) 그렇지 않다'는 0, '(매우) 그렇다'는 1로 操作되었다. 자신의 실업에 대한 主觀的 理由는 '개인의 능력 및 기술부족', '정부의 경제정책 잘못', '기업의 무능 및 잘못된 경영', 그리고 '정치인의 무능' 등 모두 4개 변수이다. 이들은 모두 '(매우) 그렇지 않다'는 0, '(매우) 그렇다'는 1로 操作하였다.

이들 변수 외에도 본 分析을 위해서는 실업자 및 그들 가구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 9개가 활용되었다. 이 중 家口所得과 失業者의 年齡은 실제 숫자인 千원 및 歲를 사용하였고, 敎育水準은 序列化된 값을 사용하였으며, 그 외의 변수는 모두 더미화 하였다. 즉, 失業者의 性(남자 0, 여자 1), 家口主 與否(가구주 0, 비가구주 1), 罹患者 與否(이환자 0, 비이환자 1), 片父母家口 與否(비편부모가구 0, 편부모가구 1), 罹患家口員 有無(없

음 0, 있음 1), 老人家口員 有無(없음 0, 있음 1) 등이다.

〈表 2〉 要因分析을 위한 諸 變數의 操作

독립변수	본 분석을 위한 조작
실업기간	실제 기간: 개월
직장을 그만 둔 이유	0: 실업자 자신의 귀책사유 1: 타인(회사, 정부)의 귀책사유
가계생계유지를 위한 취업의 필요성	0: 필요성 작음, 1: 필요성 큼
주당 평균 구직시간	실제 시간: 시간
정부실업대책 관련 변수	
실업급여 수급	0: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 없음 1: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음
실업후 직업훈련	0: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 없음 1: 직업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음
공공근로참여	0: 공공근로 참여경험 없음 1: 현재 공공근로 참여중
실업에 대한 가족반응	
배우자가 용기를 줌	0: (매우)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다
배우자 또는 자녀취업	0: (매우)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다
막막해 함	0: (매우)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다
자녀들이 부끄럽게 여김	0: (매우)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다
가족이 차가운 반응을 보임	0: (매우)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다
실업의 이유에 대한 주관적 판단	
개인의 능력 및 기술부족	0: (매우)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다
정부의 경제정책 잘못	0: (매우)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다
기업의 무능 및 잘못된 경영	0: (매우)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다
정치인의 무능	0: (매우)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다
실업자 및 실업가구 특성	
성	0: 남자 1: 여자
가구주 여부	0: 가구주 1: 비가구주
교육수준	2~8의 서열
연령	실제 연령: 세
이환자 여부	0: 이환자 1: 비이환자
가구총소득	실제 소득: 천원
편부모가구 여부	0: 비편부모가구 1: 편부모가구
이환가구원 유무	0: 없음 1: 있음
노인가구원 유무	0: 없음 1: 있음

나. 分析結果

從屬變數인 不安感, 敵對感, 憂鬱感에 영향을 주는 要因에 관한 분석 결과는 <表 3>~<表 5>에 잘 나타난다. 이들 유형의 심리상태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失業者의 '不安感'에 影響을 주는 要因

실업자의 심리상태 중 '불안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失業期間, 가계생계유지를 위한 就業의 必要性, 失業給與 受給與否, 실업에 대한 家族들의 反應 5개 변수, 실업자의 敎育水準, 罹患失業者 與否, 家口總所得, 老人家口員 有無 등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불안감은 실업기간이 길수록(.017), 가계의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의 필요성이 强한 실업자가(1.311),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실업자(-.703)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에 대한 가족의 반응이 어떠한지가 실업자의 심리상태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에 대하여 배우자가 용기를 주지 않는 경우(-.322), 실업자 대신에 배우자 또는 자녀가 취업을 한 경우(1.049), 실업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막막해 하는 경우(1.429), 자녀들이 실업자를 부끄럽게 여기는 경우(.629), 가족이 차가운 반응을 보이는 경우(1.198)에 대해 실업자는 불안감을 강하게 나타냈다. 또한 실업자의 교육수준이 낮은(-.243), 이환실업자(-.919), 가구소득이 낮고(-.002), 노인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실업자(.432)에게 이러한 심리상태가 보다 많이 나타났다.

이들 변수는 실업자의 '불안감'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心理狀態群으로 보고 있는 '적대감'과 '우월감'에도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不安感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구직시간, 실업이유, 가구주여부, 연령 등이 있었다. 즉, 실업자의 週當 平均求職時間이 길수록(.019), 失業의 理由가 정부의 경제정책 잘못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할수록(.704), 실업자가 家口主일 때(-.375), 그리고 실업자의 年齡이

높을수록(.034) 실업자가 느끼는 不安感은 높았다.

〈表 3〉 失業者의 '不安感'에 影響을 주는 要因의 回歸分析

변수	b	s.e.
절편	11.087***	.685
실업기간	.017**	.006
직장을 그만 둔 이유	.248	.164
가계생계유지를 위한 취업의 필요성	1.311***	.287
주당 평균 구직시간	.019***	.005
정부실업대책 관련 변수:		
실업급여 수급	-.703**	.289
실업후 직업훈련	.238	.311
공공근로참여	-.458	.613
실업에 대한 가족반응:		
배우자가 용기를 줌	-.322**	.173
배우자 또는 자녀취업	1.049***	.185
막막해 함	1.429***	.167
자녀들이 부끄럽게 여김	.629#	.346
가족이 차가운 반응을 보임	1.198***	.268
실업의 이유에 대한 주관적 판단:		
개인의 능력 및 기술부족	.050	.197
정부의 경제정책 잘못	.704***	.194
잘못된 기업경영	.156	.180
정치인의 무능	.217	.202
실업자 및 실업가구 특성:		
성	-.031	.273
가구주 여부	-.375#	.211
교육수준	-.243***	.734
연령	.034***	.009
이환자 여부	-.919***	.263
가구총소득	-.002**	.001
편부모가구 여부	.816	.591
이환가구원 유무	.089	.124
노인가구원 유무	.432**	.177
	R^2 .22 Adj. R^2 .21	
F	23.0***	

註: # p<.1, * p<.05, ** p<.01, *** p<.001

2) 失業者의 '敵對感'에 影響을 주는 要因

실업자가 느끼는 심리상태 중에서 '敵對感'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失業期間, 가계생계유지를 위한 就業의 必要性, 失業給與 受給與否, 실업에 대한 家族들의 反應 5개 변수, 실업자의 敎育水準, 罹患失業者 與否, 家口總所得, 老人家口員 有無 등이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적대감은 실업기간이 길수록(.019), 가계의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의 필요성이 强한 실업자가(1.007),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실업자(-.558)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에 대한 가족의 반응이 어떠한지가 실업자의 심리상태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에 대하여 배우자가 용기를 주지 않는 경우(-.372), 실업자 대신에 배우자 또는 자녀가 취업을 한 경우(.866), 실업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막막해 하는 경우(1.144), 자녀들이 실업자를 부끄럽게 여기는 경우(1.135), 가족이 차가운 반응을 보이는 경우(1.536)에 대해 실업자는 적대감을 강하게 나타냈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은 실업자(-.123), 이환실업자(-.522), 가구소득이 낮고(-.003), 노인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실업자(.462)들이 이러한 심리상태에 많이 있었다.

敵對感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들을 보면 실업자의 週當 平均求職時間이 길수록(.012), 職場을 그만 둔 理由가 실업당사자의 잘못이 아닌 회사 및 정부의 잘못에 의한 경우라고 생각할수록(.290), 失業의 理由가 정부의 경제정책 잘못에 의한 것이라는 주관적 판단을 내릴수록(.552), 그리고 男性(-.605) 등이었다.

3) 失業者의 '憂鬱感'에 影響을 주는 要因

실업자의 '우울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失業期間, 가계생계유지를 위한 就業의 必要性, 失業給與 受給與否, 실업에 대한 家族들의 反應 5개 변수, 실업자의 敎育水準, 罹患失業者 與否, 家口總所得, 老人家口員 有無 등이었다.

〈表 4〉 失業者의 '敵對感'에 影響을 주는 要因의 回歸分析

변수	b	s.e.
절편	11.034***	.685
실업기간	.019**	.007
직장을 그만 둔 이유	.290#	.161
가계생계유지를 위한 취업의 필요성	1.007***	.284
주당 평균 구직시간	.012*	.005
정부실업대책 관련 변수:		
실업급여 수급	-.558*	.285
실업후 직업훈련	.282	.308
공공근로참여	-.497	.599
실업에 대한 가족반응:		
배우자가 용기를 줌	-.372*	.170
배우자 또는 자녀취업	.866***	.181
막막해 함	1.144***	.164
자녀들이 부끄럽게 여김	1.135***	.342
가족이 차가운 반응을 보임	1.536***	.265
실업의 이유에 대한 주관적 판단:		
개인의 능력 및 기술부족	.005	.196
정부의 경제정책 잘못	.552**	.191
잘못된 기업경영	.094	.178
정치인의 무능	.295	.200
실업자 및 실업가구 특성:		
성	-.605*	.269
가구주 여부	-.253	.208
교육수준	-.123#	.073
연령	-.005	.009
이환자 여부	-.522*	.260
가구총소득	-.003**	.001
편부모가구 여부	.925	.584
이환가구원 유무	.096	.122
노인가구원 유무	.462**	.174
	R^2 .15 Adj. R^2 .14	
F	14.2***	

註: # p<.1, * p<.05, ** p<.01, *** p<.001

〈表 5〉 失業者의 '憂鬱感'에 影響을 주는 要因의 回歸分析

변수	b	s.e.
절편	10.955***	.685
실업기간	.013*	.006
직장을 그만 둔 이유	.337*	.156
가계생계유지를 위한 취업의 필요성	1.177***	.274
주당 평균 구직시간	.006	.005
정부실업대책 관련 변수:		
실업급여 수급	-.769**	.274
실업후 직업훈련	.245	.302
공공근로참여	-.364	.578
실업에 대한 가족반응:		
배우자가 용기를 줌	-.776***	.165
배우자 또는 자녀취업	.804***	.177
막막해 함	1.530***	.160
자녀들이 부끄럽게 여김	1.084***	.327
가족이 차가운 반응을 보임	1.218***	.256
실업의 이유에 대한 주관적 판단:		
개인의 능력 및 기술부족	.597***	.188
정부의 경제정책 잘못	.227	.186
잘못된 기업경영	.045	.173
정치인의 무능	.446*	.196
실업자 및 실업가구 특성:		
성	-.109	.260
가구주 여부	-.734***	.200
교육수준	-.130#	.070
연령	.024**	.008
이환자 여부	-.851***	.251
가구총소득	-.003**	.001
편부모가구 여부	1.162*	.557
이환가구원 유무	.094	.119
노인가구원 유무	.692***	.169
	R^2 .22 Adj.. R^2 .21	
F	22.8***	

註: # p<.1, * p<.05, ** p<.01, *** p<.001

우울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실업기간이 길수록(.013), 가계의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의 필요성이 强한 실업자가

(1.177),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실업자(-.769)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에 대한 가족의 반응이 어떠한지가 실업자의 심리상태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에 대하여 배우자가 용기를 주지 않는 경우(-.776), 실업자 대신에 배우자 또는 자녀가 취업을 한 경우(.804), 실업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막막해 하는 경우(1.530), 자녀들이 실업자를 부끄럽게 여기는 경우(1.084), 가족이 차가운 반응을 보이는 경우(1.218)에 대해 실업자는 우울감을 강하게 나타냈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은 실업자(-.130), 이환실업자(-.851), 가구소득이 낮고(-.003), 노인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실업자(.692) 등에게서 이러한 심리상태가 많이 나타났다.

憂鬱感에 영향을 주는 기타 요인들은 직장을 그만둔 이유가 회사 및 정부의 책임이라 생각할수록(.337), 실업의 근본 이유가 個人의 能力 및 技術不足이라는 주관적 판단을 내릴수록(.597), 政治人의 無能에 의하여 실업이 되었다고 생각할수록(.446), 그리고 家口主인 실업자(-.734)와 年齡이 높은 실업자(.024), 片父母家口의 실업자(1.162)등에게서 많이 발견되었다.

V. 要約 및 結論

주변환경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실업자들은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으며, 다른 가족원에게도 많은 感情的 影響을 주게 된다. 예를 들면, 실업은 실업자를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비행 및 범죄 등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가구원의 가출, 자녀 또는 노인의 유기 및 학대, 가정폭력의 증가, 자살 등 여러 가지 가족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김승권 외(1998)의 연구에 따르면, 실업자는 배우자, (손)자녀, 부모 등 주요 가족원에 대해서 責任感, 罪責感, 扶養負擔感을 느끼고 있어 家族의 主

扶養者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연구에서는 중년 이상의 연령층 및 교육수준이 낮은 실업자일수록 취업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으며(김승권 외, 1998), 본 연구에서도 실업자의 심리상태는 실업이유, 실업기간, 구직시간, 정부정책의 수급여부, 실업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구의 특성 등에 의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실업자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失業期間, 가계생계유지를 위한 就業의 必要性, 失業給與 受給與否, 실업에 대한 家族들의 反應 5개 변수, 실업자의 敎育水準, 罹患失業者 與否, 家口總所得, 老人家口員 有無 등이었다. 즉, 이들 세 가지 유형의 심리상태는 실업기간이 길수록(불안감 .017, 적대감 .019, 우울감 .013), 가계의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의 필요성이 强한 실업자가(불안감 1.311, 적대감 1.007, 우울감 1.177),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실업자(불안감 -.703, 적대감 -.558, 우울감 -.769)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업자의 교육수준이 낮은 실업자(불안감 -.243, 적대감 -.123, 우울감 -.130)와 이환실업자(불안감 -.919, 적대감 -.522, 우울감 -.851), 가구소득이 낮고(불안감 -.002, 적대감 -.003, 우울감 -.003), 노인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실업자(불안감 .432, 적대감 .462, 우울감 .692)가 이러한 심리상태에 많이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실업자의 심리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실업자를 대하는 家族員들의 態度이다. 배우자가 용기를 주고 있는지, 생활상의 어려움 때문에 배우자 또는 자녀가 취업을 하였는지, 가족들이 막막해 하거나 실업가구원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지 등 家族關係와 관련되어 실업자는 보다 강한 心理的 變化를 겪는다. 따라서 실업자에 대한 다른 가족원의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실업자에 대한 가족의 반응이 어떠한지에 따라 실업자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결국 실업자의 심리상태는 가족의 태도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즉, 실업자에 대하여 배우자가 용기를 주지 않는 경우(불안감 -.322, 적대감 -.372, 우울감 -.776), 실업자 대신에 배우자 또

는 자녀가 취업을 한 경우(불안감 1.049, 적대감 .866, 우울감 .804), 실업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막막해 하는 경우(불안감 1.429, 적대감 1.144, 우울감 1.530), 자녀들이 실업자를 부끄럽게 여기는 경우(불안감 .629, 적대감 1.135, 우울감 1.084), 가족이 차가운 반응을 보이는 경우(불안감 1.198, 적대감 1.536, 우울감 1.218)에 대해 실업자는 불안감, 적대감, 우울감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가 겪는 심리적 변화는 실업자의 자기 삶에 대한 希望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할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極的 狀況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심리상태에 있는 실업자에 대해서 家族의 따뜻한 配慮와 전문기관에 의한 相談 및 精神的 治療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 家族葛藤, 家出 및 露宿, 家庭暴力 등 家族問題는 가구원 실직을 또 하나의 주요 요인으로 하여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大量失業이 큰 문제가 되어 이들 실업자와 그들 가족의 생활지원을 위한 경제적 측면의 많은 대책이 강구되었다.[7]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획기적인 社會扶助制度인 『國民基礎生活保障法』을 제정하여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으로 인해 당사자 및 그들 가족원이 겪는 精神的 및 心理的 葛藤에 관한 정책 및 연구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즉,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를 전·후로 실업에 대한 많은 연구가 실직자 및 실업가정의 심리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졌으나 우리 사회에서의 실업에 대한 관심은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는 실업자 및 그들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 즉, 社會安全網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였던 관계로 이들의 생활안정이 시급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경제적 생활보장 못지 않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

7) 실업대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음은 잘 알려져 있으며,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실업가정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인 경제적 측면의 실업대책은 다양하게 강구되어졌음을 의미함.

이 실업자의 심리적 안정임을 본 연구에서 잘 보여준다.

특히 실업자의 學歷水準이 낮을수록, 그리고 片父母 및 獨身家口의 失業者가 다양하고 심각한 심리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우선적으로 經濟的 問題, 즉, 再就業의 可能性이 낮고 실직으로 인한 經濟的 打擊이 상대적으로 이들 가구에 보다 큰 사실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心理狀態, 個人의 內面生活 次元에서, 그리고 실업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個人의 認識 및 解釋의 水準이 낮거나 보다 悲觀的일 경우, 그리고 그러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能動的 및 肯定的 對處에서 큰 역할을 하는 人的紐帶의 資源이 보다 缺如되어 있는 사실의 반영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실업자에 대한 家族의 配慮와 社會福祉的 對策이 긴요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失業者의 心理安定을 위한 家族員의 理解와 紐帶感 强化가 필요하다. 부부관계의 유대가 근로자 부부에게 미치는 실업의 부정적·심리적 영향을 완충할 수 있다고 한 Liem & Liem(1988)의 연구가 잘 보여준다. 실업자의 심리적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실직상황에 대해 失職者 및 家族의 認識 및 理解와 情緖的 安定을 위한 家族的 및 地域社會의 紐帶感을 强化하는 것이다. 특히 배우자를 비롯한 자녀의 이해와 용기를 주는 따뜻한 마음가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이나 강연회, 매스미디어 등을 통한 실직자 개인의 狀況把握 能力과 社會 및 家族生活에 대한 認識水準을 높이며 또한 肯定的 方向으로 誘導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부간의 役割葛藤에 의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각함을 생각할 때 보다 平等하고 開放的인 家族役割 모델에 대한 다양한 교양·상담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셋째, 心理的 紐帶感 增進을 위한 人的 네트워크의 形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같은 입장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간의 유대, 소통이 개인에게 가장 큰 심리적 지지임을 생각할 때 그러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실직아버지들의 모임 또는 실직가장 아내들의 모임 등과 같은 同僚集團(peer group) 모임의 활성화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相互 心理的 安寧과 紐帶感을 增進시켜 실업당사자 및 가족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否定的 心理狀態를 緩和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家族의 結束力 强化를 위한 家族相談事業 活性化 및 프로그램 開發이 적극 추진되어야겠다. 실업가구 가족원들의 경우 主所得原의 실업으로 인해 변화된 役割에 대한 不適應, 부부간의 不和深化, 자녀의 非行增加 등 家族의 結束力을 弱化시키는 문제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 가족원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변화된 役割에 適應할 수 있도록 家族相談事業의 活性化와 家族役割 變化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家族에서의 情緖的 機能과 役割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김재갑 외, 『실업스트레스의 변화』, LG커뮤니카토피아연구소, 1998.

김승권·이상헌·양혜경, 『여성실업자 및 실직자 가정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여성특별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장혜경·김영란, 『실업에 따른 가족생활과 여성의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9.

정무성, 「실직자와 그 가족의 위기극복을 위한 가족복지정책방향」, 『실직자 가족의 위기와 사회복지』,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제3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1998.

조성희, 「실직자 가족의 해체가능성에 관한 연구: 실직가장의 인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조흥식, 「실직자 가족의 사회복지서비스 대책수립을 위한 가족스트레스 대처모델의 적용」, 『한국가족사회복지학』 제2호,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1998.

최규련, 「실직자 가족의 문제와 대처, 우울감 및 심리문제 해결지원요구도: 실직자 아내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7권 3호, 1999.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보고서』, 1999.

Liem R. & Liem, Joam H., "Psychological Effects of Unemployment on Workers and their Families", *Journal of Social Issues*, Vol.44(4), 1988.

Perrucci, Carolyn C., Perrucci, Robert, and Targ, Dena B., "Gender Differences in the Economic, Psychological and Social Effects of Plant Closing in an Expanding Economy", *The Social Science Journal*, Vol.34, No.2, 1997, pp.217~33.

〈附表 1〉 失業者 特性別 '不安感' 관련 心理狀態 水準

(단위: %)

실업자 특성	공포감에 휩싸이는 때가 있음		신경이 예민해지고 마음의 안정이 안됨		가슴이 두근그릴 때가 있음		안절부절못해 가만히 있을 수 없음	
	비율	χ^2	비율	χ^2	비율	χ^2	비율	χ^2
성								
남자	40.2	12.3	64.7	12.0	43.6	28.4	42.6	13.7
여자	43.3	(p<.05)	66.6	(p<.05)	51.6	(p<.001)	41.5	(p<.05)
연령								
~29세	27.9		54.7		31.2		28.5	
30~39세	38.3	187.2	53.3	173.6	47.0	238.6	38.4	233.1
40~49세	53.5	(p<.001)	75.2	(p<.001)	56.3	(p<.001)	54.6	(p<.001)
50~59세	54.9		76.3		60.2		55.4	
60세 이상	42.9		65.5		51.5		50.2	
교육수준								
초교 이하	56.2		76.8		63.1		62.4	
중학교	50.2	112.9	74.9	111.7	53.3	131.5	52.0	173.9
고등학교	38.1	(p<.001)	62.6	(p<.001)	42.5	(p<.001)	38.7	(p<.001)
대학 이상	32.1		57.2		38.3		29.6	
결혼상태								
미혼	29.2	146.6	55.9	133.9	33.6	171.2	31.6	134.8
유배우	46.5	(p<.001)	69.6	(p<.001)	51.4	(p<.001)	46.4	(p<.001)
이혼·별거·사별	59.0		78.4		67.4		62.1	
가구주여부								
가구주	46.3	54.1	69.7	55.4	50.7	48.3	48.2	89.1
비가구주	35.6	(p<.001)	60.5	(p<.001)	41.3	(p<.001)	35.5	(p<.001)
실업기간								
5개월 미만	36.4		63.6		43.1	38.9	38.6	31.9
6~11개월	45.4	43.1	68.6	12.0	49.1	(p<.001)	47.5	(p<.001)
12개월 이상	47.6		66.7		54.7		45.6	
이환여부								
비이환자	38.2	96.6	62.2	139.8	43.6	123.9	39.2	96.8
이환자	57.7	(p<.001)	83.0	(p<.001)	60.9	(p<.001)	58.2	(p<.001)
전체	41.1		65.3		46.2		42.2	

〈附表 2〉 失業家口 特性別 '不安感' 관련 心理狀態 水準

(단위: %)

실업자 가구특성	공포감에 휩싸이는 때가 있음		신경이 예민해지고 마음의 안정이 안됨		가슴이 두근그릴 때가 있음		안절부절못해 가만히 있을 수 없음	
	비율	χ^2	비율	χ^2	비율	χ^2	비율	χ^2
가구총소득								
없음	43.9		66.9		50.4		44.1	
~ 19만원	46.3		70.4		48.5		49.5	
20~ 49만원	48.3	74.4	72.3	114.2	53.2	127.3	48.4	125.9
50~ 79만원	45.8	(p<.001)	70.4	(p<.001)	49.9	(p<.001)	47.9	(p<.001)
80~ 99만원	37.9		65.4		39.3		42.2	
100~199만원	32.6		57.5		40.1		33.4	
200만원 이상	30.5		47.5		30.7		24.1	
가구유형								
독신가구	40.7		65.0		52.2		48.1	
부부(+미혼자녀)가구	40.8	18.0	65.9	39.2	45.2	31.4	41.3	25.2
편부모가구	52.2		79.0	(p<.001)	56.9	(p<.01)	53.8	(p<.05)
기타가구	41.1		64.3		36.1		41.7	
취업자수								
없음	43.7	39.3	67.0	47.4	48.3	46.5	46.1	46.6
1명	42.2	(p<.001)	66.7	(p<.001)	48.0	(p<.001)	40.7	(p<.001)
2명 이상	32.4		57.7		37.0		35.8	
실업자수								
1명	40.9	4.4	64.5	5.3	45.4	4.2	41.0	11.3
2명 이상	42.7		68.5		48.7		46.4	(p<.01)
이환가구여부								
비이환가구	36.3	60.3	60.0	96.3	43.1	57.0	37.7	53.4
이환가구	49.0	(p<.001)	74.0	(p<.001)	51.4	(p<.001)	49.4	(p<.001)
전체	41.1		65.3		46.2		42.2	

〈附表 3〉 失業者 特性別 '敵對感' 관련 心理狀態 水準

(단위: %)

실업자 특성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남		무엇을 때려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김		자신도 모르게 울화가 치밈		잘 다툼	
	비율	χ^2	비율	χ^2	비율	χ^2	비율	χ^2
성								
남자	58.6	7.7	25.0	67.5	48.1	6.0	25.6	9.1
여자	60.8		14.3	(p<.001)	45.7		24.2	
연령								
~29세	54.8		18.8		36.0		20.3	
30~39세	56.3		21.5		48.6		26.7	
40~49세	64.6	81.9	25.2	47.6	55.7	136.2	30.0	64.2
50~59세	66.5	(p<.001)	22.9	(p<.001)	56.1	(p<.001)	25.8	(p<.001)
60세 이상	56.9		18.3		48.0		24.5	
교육수준								
초교 이하	66.9		23.0		56.6		28.7	
중학교	65.4	55.5	29.4	27.1	53.2	62.9	25.8	42.6
고등학교	58.9	(p<.001)	23.2	(p<.05)	47.0	(p<.001)	27.6	(p<.001)
대학 이상	51.7		15.9		37.9		17.3	
결혼상태								
미혼	53.6		20.1		37.7		19.7	
유배우	62.4	59.4	22.6	22.5	51.8	93.8	28.3	64.8
이혼·별거·사별	63.8	(p<.001)	19.9	(p<.05)	59.8	(p<.001)	27.7	(p<.001)
가구주여부								
가구주	61.5	26.4	24.7	38.0	52.3	52.1	27.4	21.0
비가구주	56.8	(p<.001)	17.8	(p<.001)	41.8	(p<.001)	22.8	(p<.001)
실업기간								
5개월 미만	54.1		16.6		44.4		22.1	
6~11개월	65.1	49.4	24.9	42.4	50.2	28.5	29.3	27.0
12개월 이상	64.9	(p<.001)	26.2	(p<.001)	53.0	(p<.01)	25.7	(p<.01)
이환여부								
비이환자	57.2	82.5	20.3	42.6	44.9	74.4	23.7	35.5
이환자	71.6	(p<.001)	28.1	(p<.001)	60.8	(p<.001)	32.7	(p<.001)
전체	59.3		21.5		47.3		25.1	

〈附表 4〉 失業家口 特性別 '敵對感' 관련 心理狀態 水準

(단위: %)

실업자 가구특성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남		무엇을 때려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김		자신도 모르게 울화가 치밈		잘 다툼	
	비율	χ^2	비율	χ^2	비율	χ^2	비율	χ^2
가구총소득								
없음	61.4		23.1		51.3		26.7	
~ 19만원	68.9		27.9		53.0		26.4	
20~ 49만원	67.1	92.8	25.0	73.2	50.3	78.6	32.0	74.1
50~ 79만원	64.8	(p<.001)	24.5	(p<.001)	51.0	(p<.001)	28.8	(p<.001)
80~ 99만원	54.8		12.6		46.2		21.5	
100~199만원	52.6		17.0		40.3		17.7	
200만원 이상	42.7		15.3		32.1		14.7	
가구유형								
독신가구	58.0		26.7		50.7		25.9	
부부(+미혼자녀)가구	56.8	26.9	20.0	17.3	45.3	20.1	24.4	34.1
편부모가구	66.8	(p<.05)	25.4		61.3		40.7	(p<.001)
기타가구	61.7		22.1		48.1		25.1	
취업자수								
없음	62.2		23.6		50.1		28.3	
1명	60.3	39.4	19.5	29.9	46.3	38.6	24.2	46.6
2명 이상	50.2	(p<.001)	21.1	(p<.001)	42.6	(p<.001)	19.4	(p<.001)
실업자수								
1명	58.5	11.0	22.0	4.8	47.0	4.2	24.2	17.3
2명 이상	60.9	(p<.05)	18.7		47.3		30.0	(p<.001)
이환가구여부								
비이환가구	55.2	62.7	19.1	33.5	43.3	47.2	23.2	31.3
이환가구	66.1	(p<.001)	25.4	(p<.001)	53.6	(p<.001)	28.3	(p<.001)
전체	59.3		21.5		47.3		25.1	

〈附表 5〉 失業者 特性別 '憂鬱感' 관련 心理狀態 水準

(단위: %)

실업자 특성	매사가 힘듦		허무한 느낌이 듦		외로움		죽고 싶은 기분임	
	비율	χ^2	비율	χ^2	비율	χ^2	비율	χ^2
성								
남자	68.6	84.3	58.2	12.8	39.8	14.0	18.8	4.8
여자	54.3	(p<.001)	61.3	(p<.05)	39.6	(p<.05)	19.4	
연령								
~29세	56.9		49.2		30.9		12.3	
30~39세	61.0	223.5	56.7	162.5	36.2	129.8	17.5	133.2
40~49세	73.2	(p<.001)	66.7	(p<.001)	46.8	(p<.001)	25.2	(p<.001)
50~59세	74.5		70.8		50.2		25.7	
60세 이상	71.7		68.5		49.3		21.3	
교육수준								
초교 이하	79.3		68.1		49.4		25.6	
중학교	76.0	191.5	69.1	87.4	49.5	77.8	23.4	19.1
고등학교	58.9	(p<.001)	57.6	(p<.001)	37.1	(p<.001)	18.9	(p<.001)
대학 이상	47.5		51.1		33.0		12.3	
결혼상태								
미혼	48.8	179.7	50.5	115.0	34.8	116.1	12.4	121.8
유배우	67.7	(p<.001)	62.4	(p<.001)	39.6	(p<.001)	20.5	(p<.001)
이혼·별거·사별	80.4		77.9		64.8		41.1	
가구주여부								
가구주	68.6	84.3	64.9	71.7	45.0	61.1	23.8	75.2
비가구주	54.3		53.1	(p<.001)	34.1	(p<.001)	13.9	(p<.001)
실업기간								
5개월 미만	57.7	33.9	57.3	26.4	37.3	29.7	18.0	44.5
6~11개월	66.7	(p<.001)	62.8	(p<.01)	42.8	(p<.001)	19.8	(p<.001)
12개월 이상	68.8		64.2		40.7		24.1	
이환여부								
비이환자	58.9	84.7	56.8	79.5	37.2	94.4	16.1	110.1
이환자	78.2	(p<.001)	73.6	(p<.001)	53.9	(p<.001)	35.2	(p<.001)
전체	61.8		59.3		39.7		19.2	

〈附表 6〉 失業家口 特性別 '憂鬱感' 관련 心理狀態 水準

(단위: %)

실업자 가구특성	매사가 힘듦		허무한 느낌이 듦		외로움		죽고 싶은 기분임	
	비율	χ^2	비율	χ^2	비율	χ^2	비율	χ^2
가구총소득								
없음	65.4		60.6		43.9		25.0	
~ 19만원	72.2		64.0		46.1		29.6	
20~ 49만원	69.9	181.2	65.5	67.1	42.6	71.7	32.2	118.0
50~ 79만원	69.2	(p<.001)	63.5	(p<.001)	42.9	(p<.001)	21.9	(p<.001)
80~ 99만원	62.8		61.4		35.2		13.0	
100~199만원	51.0		52.1		32.9		10.7	
200만원 이상	32.9		52.5		29.2		9.0	
가구유형								
독신가구	64.3		68.6		59.5		32.6	
부부(+미혼자녀)가구	59.0	30.0	55.7	36.9	36.6	80.2	16.9	62.3
편부모가구	73.4	(p<.05)	66.4	(p<.001)	60.0	(p<.001)	43.6	(p<.001)
기타가구	63.6		61.4		39.5		18.5	
취업자수								
없음	66.9		60.8		42.4		23.3	
1명	61.0	71.4	59.5	30.2	38.7	23.8	16.7	47.5
2명 이상	51.3	(p<.001)	55.2	(p<.001)	35.4	(p<.05)	14.3	(p<.001)
실업자수								
1명	60.5	9.5	58.9	2.8	39.9	3.2	19.4	4.4
2명 이상	66.2	(p<.1)	60.7		39.4		18.2	
이환가구여부								
비이환가구	57.6	60.8	55.2	68.7	35.8	59.6	16.0	46.1
이환가구	68.6	(p<.001)	66.1	(p<.001)	46.0	(p<.001)	24.1	(p<.001)
전체	61.8		59.3		39.7		19.2	

Summary

An Analysis of Primary Factors Influenced on Psychological State of the Unemployed

Seung-kwon Kim

Although the degree of seriousness of unemployment is changeable across place and time, its existence per se is ever present irrespective of era or social context. Korea came to face mass unemployment in the wake of the 1997 economic crisis. Recently, the unemployment level in Korea has been trended downward to some extent, but the pre-crisis level is still far ahead. Unemployment reduces household income, plunging the unemployed their families into an economic morass. In the process, the unemployed in Korea cannot help but experience a diverse range of psychological changes that as a consequence bring out further changes in their attitude toward themselves, family members and society. There also are some cases where some of the unemployed fail to restrain themselves from showing unexpected, aberrant behavior.

Based on direct personal interviews conducted between professional researchers and 30,000 households in 250 districts sampled on the basis of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1995) districts across the country, the present study utilized the analytic data from 『A National Survey on the Status of Unemployment and Welfare Needs』 (1998). The sampled households were divided into unemployed households and non-unemployed households. Out of a total of 4,339 households responded to in-depth interview questions, 2,767 were unemployed households and the rest were non-unemployed households.

One of important findings of this study is that the longer the duration of unemployment continues and the stronger the need or

desire for employment for maintenance of livelihood is, the stronger the states of anxiety, hostility, and depression continue. Also found was that such psychological states were more prevalent among those not receiving unemployment benefits. In addition, unemployed people of low education level and with low household income, the ill unemployed, and unemployed people in households with elderly members had higher tendency to anxiety, hostility and depression.

The strongest factors affecting psychological state of the unemployed were family members' attitude and responses toward them. It is when they get no encouragement from their spouses, have the spouse or a child fill the position of breadwinner to the family in their stead, or realize their children feel ashamed of them or give them cold reception, unemployed people feel strong anxiety, hostility and depression.

To help the unemployed gain psychological stability would, therefore, require taking the following measures. First, efforts should be made to foster family members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of unemployment conditions and strengthen family and community ties. Second, efforts should be made to enhance the ability of the unemployed to grasp their situation and to induce them to develop positive recognition of social and family life through various counseling programs, lectures and mass media. Third,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forge human network conducive to psychological ties between society and the unemployed. Last, family-counseling projects and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to strengthen familial solidarity.